불교에도 동화가 있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① 프롤로그 : 왜 불교 동화인가?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 '백설 공주'와 '여우와 두루미', '돼지들의 소풍', '빨간 구두' 등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문학의 근본 물음을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한 책이다. 일종의 동화를 통한 인문학적 의미 찾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돼 책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내용을 보충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내고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책을 쓸 당시 새롭게 펼쳐본 동화는 그야말로 인문학의 보고였다. 어릴 때는 가볍게 읽고 넘어갔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와 사랑, 배려, 오만, 질투, 금지된 욕망 등 다양한 감정이 담겨있었다.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토끼의 오만이 경기를 패배로 이끌었으며, '흥부와 놀부'에서는 동생을 향한 형의 질투가 자신의 삶을 망가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빨간 구두'에서는 인간의 금지된 욕망을 읽을 수 있었고, '여우와 두루미'에서는 배려가 없는 사랑은 언제든 폭력이나 조롱이 될 수 있다는 인문학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동화에는 성실과 책임, 정직, 효 등과 같은 인성 관련 내용도 많이 담겨있었다. 어느 선생님은 인성을 주제로 한 동화를 오늘에 맞게 해석하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어 인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동화를 선정해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해 보기도 했다.

실제 책이 출간된 이후 여러 학교에서 이를 교재로 인성 교육을 진행했다. 그저 초등학교 때 읽은 단순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동화에 이처럼 다양한 철학적 사유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지 않은 학생이 놀라워했다. 어떤 학생은 동화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 책을 교재로 담당 선생님이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저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책을 출간할 당시 불교도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교에도 다양한 형태의 동화가 있으니 말이다. 그런 생각만 있었을 뿐, 출간한 지도 오래돼 한동안 잊고 지냈다. 그런데 지난해 출판사 대표가 후속작을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동화와 관련해서는 글밑천도 떨어진 것 같아 고민해 보겠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잊고 있었던 '불교 동화'라는 네 글자가 떠올랐다. 이런 주제라면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개정판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를 편집한 분이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소임을 맡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서로 공감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는 이런 인연을 통해 연재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교에도 다양한 종류의 동화가 있다. 주로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흔히 자타카(Jātaka)라고 하는데, 대개 전생담(前生談)이나 본생담(本生談)으로 번역된다.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기 이전의 삶이 동화 형식을 통해 전승된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추석이 다가오면 회자

동화, 인문학적 성찰·인성 관련 내용 담겨
부처님 전생으로 만나는 불교 동화 많아
자타카, 불격 전환 위한 정진 과정 수록돼
석가보살 삶과 수행의 의미 성찰 뜻깊어
불교 동화 속 삶의 본질과 철학 전하려 해

하는 달 속의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는 이야기 역시 전생담에 나온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토끼로 살면서 수행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동화인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무구광(無垢光) 보살로 살았을 때 과거불인 연등부처님께 꽃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장차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받은 이야기 역시 동화라고 할 수 있다. 수기란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불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인 셈이다.

그렇다면 불교 동화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것일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전생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속내가 있을 것이다.

인격에서 불격(佛格)으로

이러한 자타카를 만든 이들을 흔히 찬불승(讚佛乘)이라 한다. 글자 그대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승불교가 일어날 당시 그들은 불탑에 참배하러 오는 신도에게 부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다. 오늘날로 보면 일종의 문화 해설사 역할을 한 셈이다. 그들은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장면을 탑에 새기고 순례자에게 해설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장면을 시작으로 출가와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팔상성도(八相成道)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찬불승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자타카를 만든 것일까? 물론 불교를 대중에게 널리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지만, 그 근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격에 대한 찬탄과 추앙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다.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인격이 6년간의 수행만으로 가능할까?'

알려진 것처럼, 싯다르타는 29세에 출가하여 6년 동안 수행하고 35세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45년 동안 고통에 빠진 중생을 건지기 위한 교화행을 펼치다가 80세에 열반에 이른다. 찬불승들은 이런 위대한 삶이 6년의 고행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들은 부처님께서 수많은 윤회, 전생을 거듭하면서 임금이나 사문, 장자, 토끼 등 여러 모습으로 수행한 끝에 인도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이처럼 고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수억 겁 동안 지극한 수행을 통해 중생이 부처로, 인격이 불격(佛格)으로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즉 자타카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생담에서 부처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원숭이나 코끼리, 토끼와 같은 동물로, 때로는 임금이나 신하, 장자(長者)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중생에서 부처로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정진한 수행자라는 사실이다. 이를 가리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菩薩)이라 했다.

보살은 처음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해당하는 용어였다. 그런데 대승불교 운동이 널리 퍼지면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下化衆生]'는 이념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모든 사람을 가리켰다. 이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서원(誓願)을 세우고 출가하면 비구, 비구니 보살로 불렸고 재가자라면 우바새, 우바이 보살이라 이름했다. 대승불교를 보살불교라 정의할 만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타카를 만드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자타카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생 이야기는 수행을 통해 인격에서 불격으로 질적 전환을 위한 과정을 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불교 동화가 의미를 갖는 지점이기도 하다. 불교는 중생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었고, 부처님[佛]의 가르침[敎]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이다. 자타카를 통해 석가보살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성찰하는 일은 매우 뜻깊다 할 것이다.

이 글은 불교 동화를 통해 서두에서 언급한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문학의 근본 물음에 대해 오늘의 시선에서 성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 불교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선택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인문학적 의미를 전하려 한다. 불교 동화와 함께 떠나는 인문학, 혹은 철학 여행이라 생각하면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백제 풍탁(특대)

백제 미륵사지 풍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소리가 좋다! 아름답다! 튼튼하다!



성종사에서 제작하여, 소리가 좋은 것은 기본이며, 아름답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미륵사지 풍탁으로 검색)

1. 튼튼한 스텐레스 소재의 링과 굵고 튼튼한 황동 체인, 황동판으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에도 쉽게 몰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 풍경의 소음 때문에 풍경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 요청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3. 바람판(물고기판)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연꽃, 구름, 종기 등 다양한 형태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4. 표면의 종기 부분을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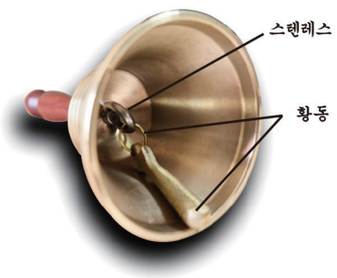
규격
- 종 : 19×14×31cm
- 바람판 : 30×13cm
- 가격: 120만원(개금 150만원)

조계종 화엄사, 광제사, 직지사, 석굴암, 천태종 구인사, 월명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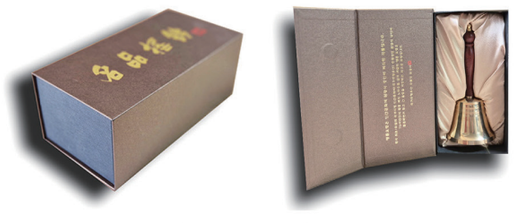
성종사, 소리 좋고 튼튼한 명품 요령 출시!
사부대중의 요청에 따라 성종사에서 범종용 합금으로 소리 좋고 튼튼한 요령을 출시하였습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소리 좋은 요령으로 검색)



규격 小 : 74×74×180mm / 198,000원
大 : 88×88×200mm / 242,000원



오래 사용하여도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추와 링



선물용으로 적합한 최고급 포장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